
M A C R O T R E N D

01

THE SOCIAL
TRUST BY DESIGN

불평등과 갈등의 시대,
사회적 신뢰를 디자인하라

메가 트렌드, 위기와 기회를 이야기한다

메가 트렌드는 어렵다. 어려운 숫자와 이론들과 복잡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세계 석학들의 전망들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산업이, 기업이, 또는 브랜드가 어떠한 방향성을 얻어가야 할지 결론 내리기 쉽지가 않다.

이번에 제공되는 2개의 메가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환경변화들 속에서 '위기로 부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기회로 부각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위기를 중심으로 한 메가 트렌드를 풀어낼 것이며, 위기 속에서 어떠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와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기회를 중심으로 한 메가 트렌드를 제시하며, 글로벌 사회가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기회를 확산시키고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평등과 갈등의 시대, 사회적 신뢰를 디자인하라

THE SOCIAL TRUST BY DESIGN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ust의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trost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혹시 그 사람이 배신을 저지르진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배신을 위한 예방에 들어야 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95년 여름에 출간한 「트러스트」에서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를 비롯하여 글로벌 사회는 그야말로 불신과 불안과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는 그의 저서에서 세계화의 모순을 언급하며, 세계화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통합과정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과정이었으며, 거대 통합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개인은 '보편적인 글로벌 문화'와 '지역적인 전통문화'사이에서 가치관이 뒤섞여 버려 혼란스러운 시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사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불평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위기를 촉발시키고,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들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성장과 화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모든 사회와 구성원들이 관용과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잘 인식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디자인과 기업, 브랜드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불평등의 위기를 정확히 살펴보고, 진정한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CONTENTS

	PAGE
01 THE EXTREMES OF INEQUALITY	05
<hr/>	
세계화 시대 갈등의 기원, '불평등'	
01 경제적 불평등	06
02 기술적 불평등	08
03 환경적 불평등	09
04 사회적 불평등	10
02 FOR HIGH TRUST SOCIETYTY	12
<hr/>	
'고(高) 신뢰 사회'로의 움직임	
01 고(高)신뢰사회와 관계 중심의 사회자본	13
02 다양성의 자원화_관용의 나라로 부상하는 독일의 경쟁력	14
03 교육과 일자리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	15
03 BECOME TRULY SOCIAL	16
<hr/>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라	
01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융합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	17
02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집단지성	18
03 도시불평등 해결을 위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19
04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브랜드 컬러 구축	20
05 교육과 일자리 불평등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마련	21

An aerial,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city street. A large, mature tree stands prominently in the center of the street, casting a shadow. The street is lined with buildings of varying heights and styles. A white van is visible on the street, and a car is parked on the left side. The overall scene depicts an urban environment with a mix of architectural styles and greenery.

THE SOCIAL TRUST BY DESIGN

세계화시대갈등의기원, 불평등

THE EXTREMES OF INEQUALITY

경제적 불평등, 1% VS 99%

2015년 다보스포럼 글로벌 10대 어젠다 1위는 '소득 불평등 심화'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2011년 99%의 반란을 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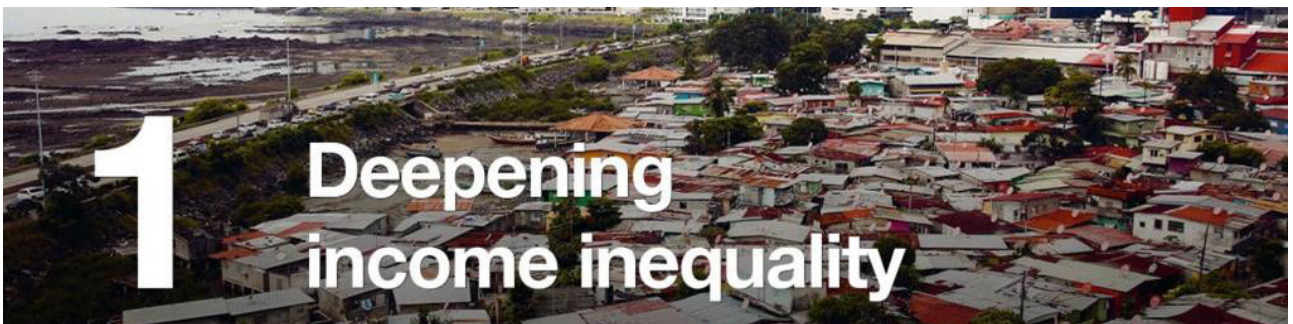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핵심의제로 떠올라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선정한 글로벌 10대 어젠다 가운데 소득 불평등 심화가 1위를 차지했다. 소득 불평등은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순위가 올라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소득 불평등 문제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를 잇달아 겪으며 가장 뜨겁게 부각된 이슈다. 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웰스 리포트(2013)'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상위 0.7%가 전 세계 부(富)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하위 68.7%가 보유한 부는 단 3%에 불과하다.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 아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 시민들이 일으킨 워싱턴 정가와 금융권의 유착을 규탄하는 시위였다. 당시 시민들은 '상위 1%의 부자가 99%의 민중을 강탈하고 있다'며 사회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시위는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99%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아 언제 또 다시 갈등이 증폭될지 불안한 상황이다.

다보스포럼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사회 불평등 해소와 경제회복 등을 요구하는 중산층들의 '민중의 소리'가 가져다 줄 위험성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를 짓누르는 이유는 실업, 빈부 격차는 물론 정치적 불안정, 국가 간 분쟁, 환경오염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모두 소득 불평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소득 불평등이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은 "소득 불평등은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고 지속 가능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마저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 TOP10 TRENDS OF 2015



SOURCE | reports.weforum.org/outlook-global-agenda-20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SOURCE | dreamstime.com

2011년 반란의 해



SOURCE | static2.demotix.com

2015년 부의 불평등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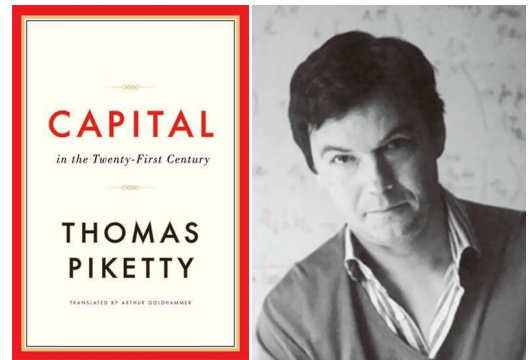


SOURCE | agenda.weforum.org

전세계를 강타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열풍과 논쟁,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OECD국가 중 5위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위협요인 1위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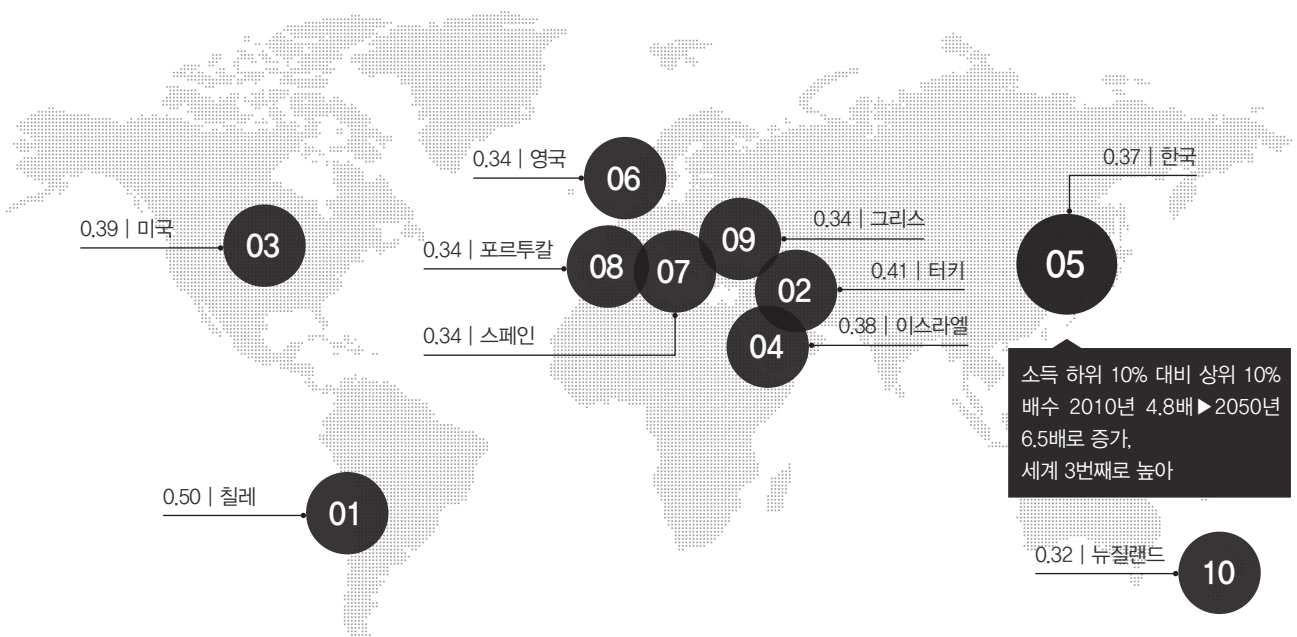
프랑스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와 그의 책 <21세기 자본>은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을 강타했다. 이 책은 지난 3월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에 상륙하자마자 그야말로 '피케티 열풍과 논쟁'을 일으켰다. 피케티에 따르면,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근본 속성이며, 불평등 상황은 능력주의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한다. 그의 대안은 '글로벌 부유세'다. 이자·배당금·로열티 등 자본의 소유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상속에 높은 세율의 누진세를 글로벌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의 이론과 대안은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논란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경제학 서적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개개인들까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한편,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국민은 하위 10% 선의 국민에 비해 4.8배를 벌고 있지만 2060년에는 6.5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통계청 지니계수(빈부격차를 설명하는 대표 지표)의 단점을 보완해 산출한 신(新)지니계수로 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7에 달하며, 이는 OECD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설 확률은 2013년 23.3%에서 2014년 22.6%로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이 Survey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불평등'을 1위로 꼽았다고 한다. 불평등 심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자본론 by 토마스 피케티



SOURCE | nybooks.com

세계 '정상권' 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 지니계수 순위



※ 한국은 2010년 수정 지니계수, 나머지는 2011년 기준

기술적 불평등, 치우쳐진 기술발전의 혜택

디지털 혁명이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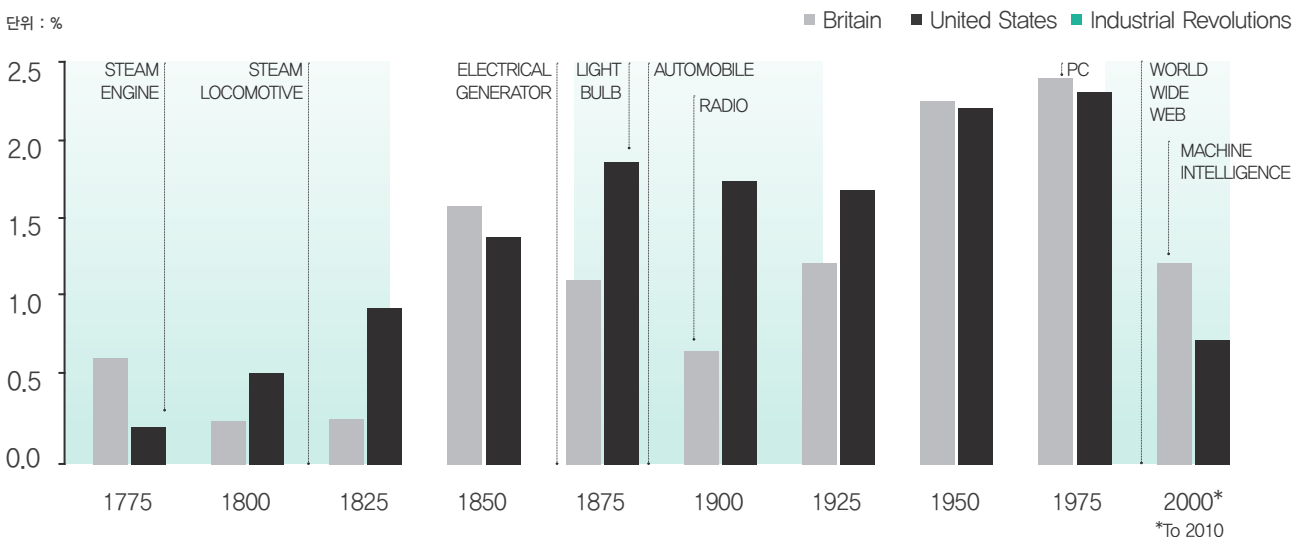
유능한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하이테크의 시대에 기술분야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불평등'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매거진 Economist(2014.10)와 기술 분야 매거진 MIT Technology Review(2014.10), 뉴욕타임즈 신문(2015. 01)에서는 모두 기술발전이 야기시키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메인 이슈로 다루었다.

Economist는 '제3의 큰 물결(The third great wave)'이라는 제목으로 무인자동차와 드론(무인기), 자동번역기술,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진료·교육 기술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런 디지털 혁명이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18, 19세기에 있었던 1, 2차 산업혁명은 고통이 따랐음에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했지만 이번 제3의 디지털 혁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기술과 불평등(Technology and Inequality)에서도 IT전자 분야의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양극화 현상을 예로 들며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리콘밸리에 부가 축적되는 것과는 별개로 시간당 16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실리콘밸리 남부 주민의 19퍼센트가 가난한 층에 속한다고 한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 중 20~25% 정도가 하이테크 영역에 종사하고 있고, 부는 그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에서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이른바 '스텸(STEM)' 분야가 미국 사회의 새로운 인종 차별이나 남녀 불평등을 초래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분야들의 직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균 연봉이 높고 일자리 증가 속도도 더 빠르지만 전공자나 종사자들이 백인 남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미과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과학자와 공학자를 인종과 성별로 분류한 결과 백인 남성이 51%로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이 백인 여성(20%), 아시안 남성(12%), 아시안 여성(5%), 히스패닉 남성(4%), 흑인 남성(3%), 히스패닉과 흑인 여성(각 2%) 순이었다고 한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기간에 따른 1인당 GDP 증가율

GDP Per Person, Average Annual % Change Over 25-Year Periods



환경적 불평등, 빈곤지역에 가중되는 환경피해

기후변화가 빈곤과 불평등의 핵심 이슈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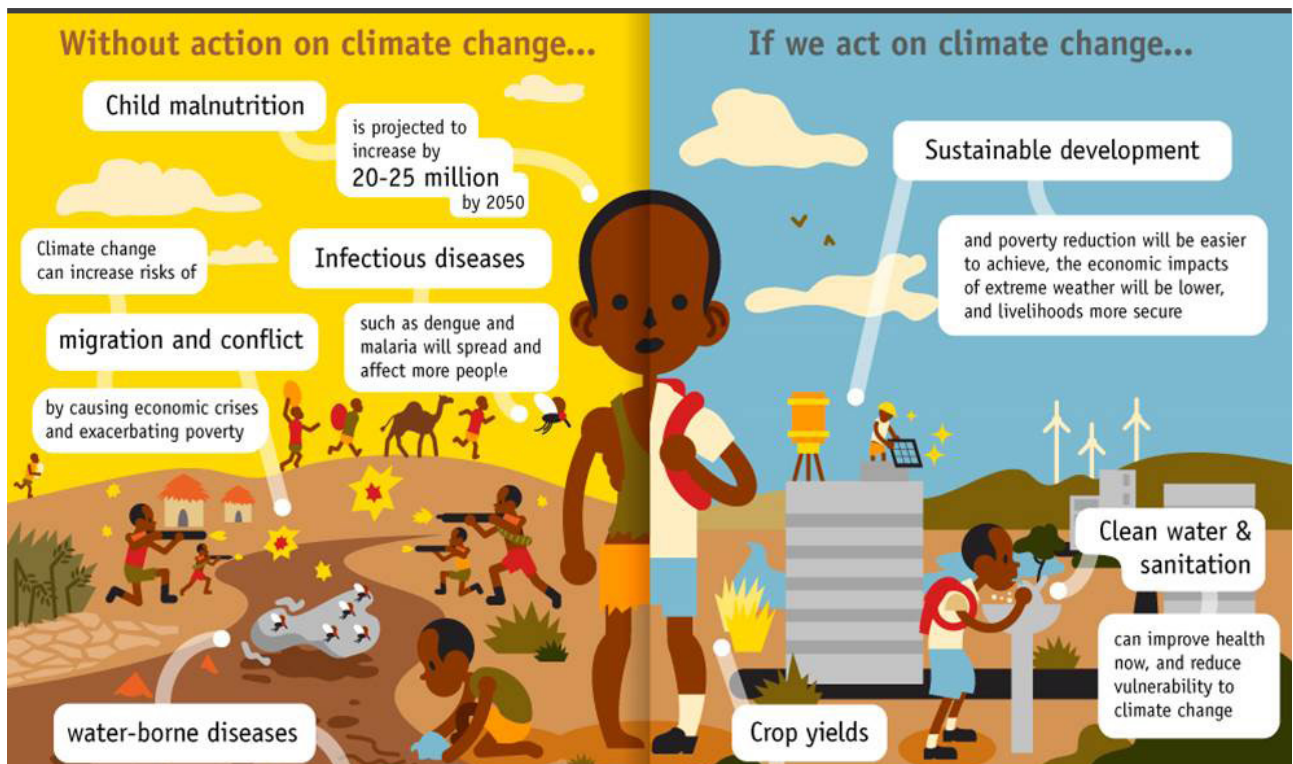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삶의 터전과 생계원을 빼앗기는 문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도상승이 전세계적으로 빈곤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40%의 빈곤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특히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1차 산업을 주요 경제활동원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그들의 삶 그 자체이며, 삶을 유지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기후변화는 이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17차 더반회의에서 협의된 The Global Climate and Health Alliance에서는 지역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성 및 대응전략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수면상승(sea level rise:SLR) 및 태풍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안가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의 주요한 쌀 생산지인 메콩삼각주 지역은 현재 추세로 온도가 상승한다면 2070년쯤에는 해수면이 33cm가량 높아져 이 지역의 60%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둘째,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경우, 1970년대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 이후에도 여전히 식량문제와 영양실조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의 증가와 심각한 가뭄으로 기근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져 식량생산의 감소와 영양실조와 관련된 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물과 관련된 질병발생가능성이 증대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세계은행과 UNFCCC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는 최근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적응전략을 위한 재원을 모으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헬사막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사회적 불평등, 도시불평등과 다양성의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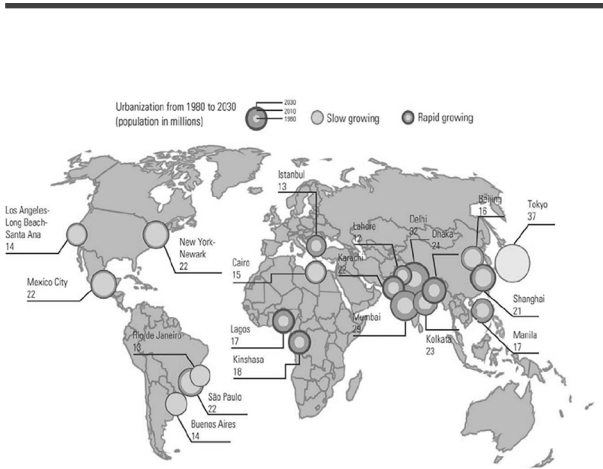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래의 메가시티(Megacity)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도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정책 필요

전 세계적인 도시 인구 과밀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 도쿄, 델리, 상하이,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인구 1000만 명 이상 '메가시티'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인구가 향후 30년 간 25억 명이 늘어 2045년 6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PMG의 2030 미래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60%는 도시에 살게 될 것이며, 향후 20년 안에 도시성장의 8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엔사회경제국(UN DESA)도 인도와 중국, 나이지리아는 30년 동안 인구가 37%가 늘어날 것이며, 2050년까지 인도의 도시인구는 4억400만 명, 중국은 2억9200만 명, 나이지리아는 2억12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시의 인구 증가는 사회문제로 직결된다.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교육, 보건, 주택, 인프라, 운송, 에너지, 고용 등 복지 문제 해결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다. 유엔사회경제국은 도시지역 관리가 21세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인구 성장에 대해 정부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무질서와 빈민가뿐일 것이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의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이 도시 지역의 균등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장중심의 도시화는 '도시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대도시에서 상위 5%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보다 11배가 많았는데 이는 미국 전체로 봤을 때 9배가 많은 것 보다 큰 차이라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 상위 5%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5~16배나 되었고 버지니아비치나 워싱턴과 같은 도시들에서 이 격차는 6~8배 정도이다. 도시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시 곳곳의 빈민지역들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의 도시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중이다. 문제는 미래에 메가시티로 부상할 아시아 지역과 개발도상국들의 도시화가 과거의 것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2030년 메가시티 예측 지도(20곳)



SOURCE | Future State 2030: The global megatrends shaping governments, KPMG, 2013

미국 전체 불평등 지수와 대도시의 불평등 지수 비교



SOURCE | Brookings Institution analysis of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data

관용 없는 다문화 도시에 '도시 약자로 전락하는 이민자들,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와 문화 가치관 충돌로 사회적 갈등 증가

250년 전 세상에 나온 철학자 볼테르의 책 '관용론(Traite sur la tolerance)'이 프랑스에서 몇 주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 책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 사건 때문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은 '톨레랑스(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테러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이 극단적인 폭력을 취할 만큼 프랑스 내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 나라들의 시선도 남의 일 같지 않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보수의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장기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문화적 갈등과 이주민 차별문제는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도시들은 이주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하여 인권의 시각 차대로 물려있는 문제에 대해 그 위험성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홍콩 외국인 가정부들의 시위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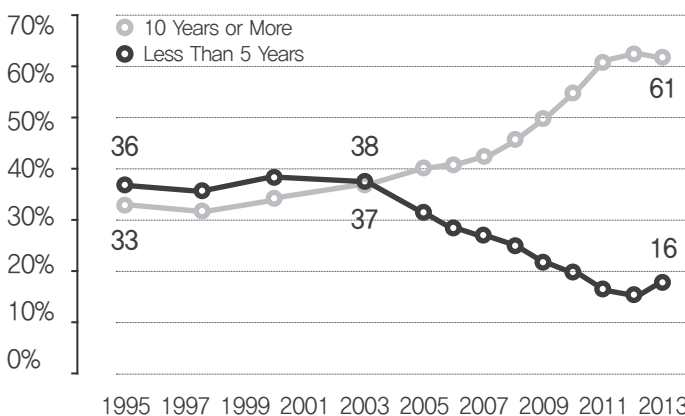


SOURCE | weeklyhk.com

최근 홍콩에서 불거진 외국인 가정부 폭행사건도 도시의 약자로 전락한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가 심각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도시경제에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 가정부로 취업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외국인 가정부는 이미 홍콩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려 어떠한 대응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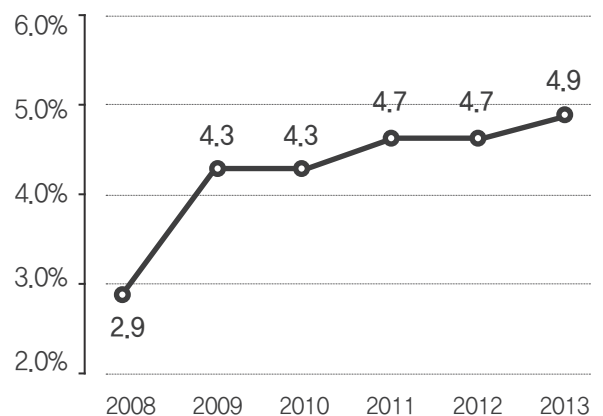
세계화의 물결 속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기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2세, 3세들이 태어나고 있다. 잠시 머물러 경험하는 타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진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불법이민자의 60%가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불법이민자는 1990년 350만명에서 매해 꾸준히 늘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22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불법이민자의 신규 유입은 정체인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거주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이제 한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은 2.9%에서 2013년 4.9%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도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 10년 이상 장기거주 불법이민자와 5년 미만 단기거주 불법이민자의 비중 추이



SOURCE | PewResearch Center(2014. 09)

국내 전체 출생 대비 다문화 비중



SOURCE | 통계청, 2013년 국제인구이동

THE SOCIAL TRUST BY DESIGN

'고(高)신뢰사회'로의 움직임

FOR HIGH TRUST SOCIETY



고(高)신뢰사회와 관계 중심의 사회자본

신뢰관계 증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불평등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한국은 가족중심의 사회자본은 강한 반면, 타문화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사회자본은 취약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에 소개된 그의 책 '신뢰(Trust)'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가 지배하는 사회(High Trust Society)'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언급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인 관계와 신뢰를 토대로 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 그리고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집단에서 생성되는 자원을 말한다.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 구조의 안정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했다. Knack and Keefer(1997)이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뢰가 10% 하락 시 경제성장률은 약 0.8%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메가트렌드2045 by 마티아스 호르크스



SOURCE | pinstake.com, ridiboo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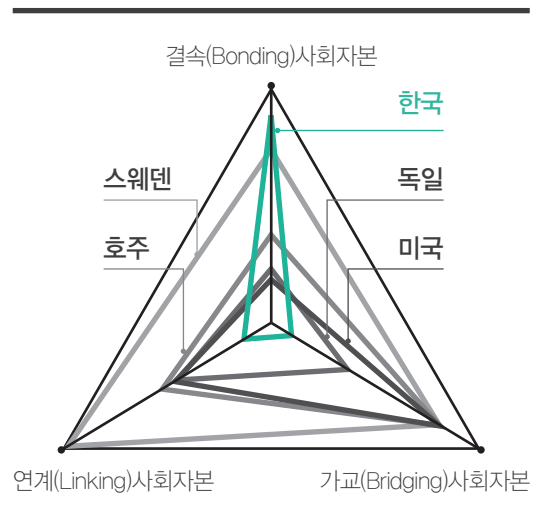
EU 함부르크 트렌드연구소의 설립자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hias Horx)는 최근 발행한 책 '메가 트렌드 2045'에서 한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자원은 바로 '신뢰'라고 언급한다. 그가 주장하는 신뢰는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내부로부터 사회를 생산적으로 만든다. 또한 사회의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의 문화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치우치는 사태를 방지해준다.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좀더 쉬워진다. 또한 신뢰는 자발적인 사회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WVS와 OECD의 정의와 측정항목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살펴보면, 사회자본은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교(Bridging) 사회자본, 연계(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성된다. 결속 사회자본은 가족, 친척, 친한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이며, 가교 사회자본은 덜 친밀한 관계, 연계 사회자본은 권력이나 돈에 의해 형성된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을 말한다.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 중심의 결속 사회자본이 우월하게 높으며, 가교 사회자본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외국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자본 구성요소 별 측정지표

구분		측정 지표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족 및 친구의 중요성 인식	가족 중요성 인식 친구 중요성 인식
	가족 및 친구와 관계 형성	이혼 및 별거 가족 비중
가교(Bridging) 사회자본	타인에 대한 관용	이민자에 대한 이웃 인정 여부
		타종교인에 대한 이웃 인정 여부
	단체 가입 및 활동	사적(예술, 종교)단체 가입 공적(자선, 환경)단체 가입 및 기부
연계(Linking) 사회자본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 중요성 인식 여부
	정치 행위 및 기업 관련 행위	청원, 평화시위, 보이 코트

주요국 사회자본 현황



SOURCE | 현대경제연구원,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2014. 11

다양성의 자원화, 관용의 나라로 부상하는 독일의 경쟁력

이민자를 인적자원으로 수용하는 친이민 정책으로 고용 성장과 평등사회 이미지 구축
 사회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되어 세계 공유경제의 수도로 부상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업인 GfK가 발표한 '2014 안홀트-GfK 국가브랜드지수(NBI)'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2009년부터 1위 자리를 지켜온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등극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5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품 신뢰도를 포함한 수출, 정부 신뢰도를 비롯한 거버넌스, 문화력, 국민 친근감과 역량, 관광 선호도, 이주·투자 매력 등 6개 범주의 23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으며, 독일은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 투자 환경, 사회적 평등과 같은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의 국가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는 데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정책적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홀트-GfK 국가브랜드 지수 순위

2014년도 순위	국가	2013년도 순위
1	독일	2
2	미국	1
3	영국	3
4	프랑스	4
5	캐나다	5
6	일본	6
7	이탈리아	7
8	스위스	8
9	호주	9
10	스웨덴	10
27	한국	27

OECD가 발표한 '2014 국제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 신규 정착한 이민자 수는 최근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 이민자 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8위였으나 작년에는 미국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독일의 고용 성장에 기여했다"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용 부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사회적 관용과 신뢰구축의 노력은 독일을 '세계 공유경제의 수도'로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들 간에, 기업과 소비자 간에,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공유경제이다. 독일의 카셰어링 이용 규모는 차량 증가폭보다 더 크다. 2010년 약 19만명이 이용했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6만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340만명 가량이 이용할 전망이다. 카셰어링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끼리 생활용품 공유하는 개인단위의 프로젝트부터 BMW와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구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정보통신산업 협회(BITKOM)에 따르면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약 83%가 물건 또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유럽 주요국 이주민 수 (유로 통계)

국가	이주민 수(명, 2011 기준)	인구대비 비율(%)
독일	719만 8900	8.8
스페인	565만 4600	12.3
이탈리아	457만 300	7.5
영국	448만 600	7.2
프랑스	382만 4800	5.9
그리스	95만 6000	8.5
오스트리아	90만 7400	10.8
네덜란드	67만 3200	4.0
스웨덴	62만 3200	6.8
포르투갈	44만 8100	4.2
노르웨이	36만 8500	7.5
덴마크	34만 5900	6.2

독일 대표 공유경제 기업

기업명	공유재	공유방법
Foodsharing	남은 음식	남은 식재로나 팔리지 않은 빵 등 웹 또는 앱으로 등록, 버리지 않고 함께 소비하거나 필요한 이용자가 수거해갈 수 있음
Kieider Kreisel	옷, 악세사리, 패션소품 등	입지 않은 옷이나 장신구 등 해당 플랫폼에 업로드해 판매 및 교환, 앱에서 이용 가능
Frents	모든 제품	공구, 잔디깎기, 보드게임, DVD 등 이웃집에서 빌릴만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이 업로드해 비용 설정 후 대여
9flats	빈 방	독일에서 창업한 인터넷 플랫폼으로 Airbnb처럼 개인이 빈방을 플랫폼에 등록, 여행객이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대여
friendfund	기부	개인이 설명과 함께 필요한 물품과 1인당 기부 희망 금액을 정해 플랫폼에 등록, SNS로 게시하면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지인이나 타인이 기부

교육과 일자리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

교육과 함께 일자리 제공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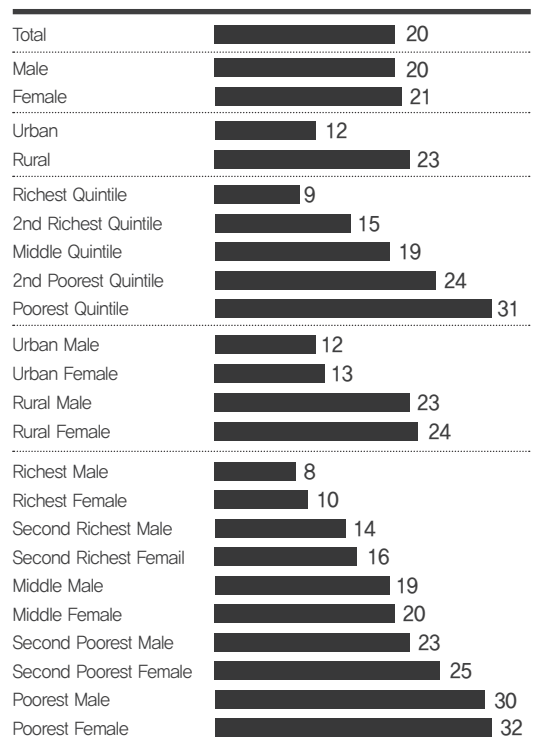
파키스탄의 교육자 소녀가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교육 문제 부각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세계가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에 몰두해 있다. 이에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선진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30년간의 회원국의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경제 성장 사이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 부족은 사회 전반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가의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결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전문 역량 저하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UNESCO에서 측정된 표를 살펴보면 지역(도시와 농촌),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초등 학교 교육등록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은 농촌(23%), 도시(12%)로 나타났다.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 학교 다니지 못하는 비율이 도시에 비해 2배정도 높으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등록률의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분쟁지역의 아이들, 문화적으로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는데 장애요소가 많은 국가(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등)의 아이들이 학교밖에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의 평등한 기회제공이 불평등 사회의 해결안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201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큰 주목을 받고있다. 2014년 10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세계는 환호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십 대 소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의 이름이 호명되었기 때문이다. 2년 전, 말랄라는 고향인 파키스탄 스와트 밸리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탈레반에 총을 맞았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후, 그는 교육의 가치를 몸소 증언하는 운동가가 되었다. 의무교육이 정착된 선진국들과 달리, 상당수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은 여전히 사치스럽거나 예외적인 일로 다루지는 경우가 많다. "노벨상 수상은 내가 시작한 운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아직도 5,700만여 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랄라의 이 같은 발언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처한 교육의 문제를 전한다.

학교 밖 아이들의 개인, 가구특성에 따른 평균비율 (57개국)



SOURCE | UIS calculations based on household survey data from 57 countries 2006–2011 (UNESCO)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SOURCE | news.tf.co.kr

THE SOCIAL TRUST BY DESIGN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라

**BECOME TRULY
S O C I A L**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융합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

가치가 주도하는 마켓3.0 시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마케팅 중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융합하는 혼합 가치를 지향하는 디자인 전략이 필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는 최근 발표한 그의 저서 '마켓3.0'에서 '가치주도의 시대'로 변화하는 시점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켓1.0 시장은 기계화와 대량생산으로 제품을 표준화하고 가격을 낮춰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심의 시대'였고, 마켓2.0 시대는 정보화로 인해 소비자가 유사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서 챙겨주며 고객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감동시키는 '소비자 지향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마켓3.0시대를 맞게 되었고 이 시대에 소비자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갈망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기업은 이성과 감성을 넘어 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해야한다. 또한 마켓3.0시대는 소비자 중심시대이기도 하며, 기업은 소비자들과 협력하고 세계화의 모순과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영적인 시각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받아들여지는 영역 내부에서도 소셜 디자인(Social Design)이나 필란트로픽 디자인(Philanthropic Design)에 대한 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는 최근 '이질적 가치들의 융합, 사회공헌 디자인(Philanthropic Design)에서 신자본주의 병폐로 드러난 지나친 경쟁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혼합한 새로운 혼합 가치(blended Value)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혼합 가치란 스탠포드 대학의 에머슨 박사가 언급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융합된 혼합 가치 경제를 말한다. 신자본주의 경쟁과 개발, 이윤 추구로 강조되어 온 경제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눔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한 환경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시대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포터의 마켓3.0의 개념

목표	마켓 1.0	마켓 2.0	마켓 3.0
목표	제품 중심, 제품 판매	소비자 지향 고객만족&고객보유	가치주도,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사례	색상이 하나뿐인 포드형 자동차	다양한 색상의 GM 쉐보레	?
	물질적 만족 Material-based Approach	정신적 만족 Contact-based Approach	관계적 만족 Relationship-based Approach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능성/생산성 중심 디자인 Form Follows Function	감성 디자인 Emotional Design 심미적 디자인 Aesthetic Design 직관적 디자인 Intuitive Design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 User Interface Design	사용자경험 디자인 User Experience Design
			서비스 디자인 Service Design
	인체공학적 디자인 Human Factor, Ergonomics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그린 디자인 Green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사회공헌디자인 Philanthropy Design
	기능주의 시대	감성 시대	사회적 시대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집단지성

많은 기업들의 사업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산되었고, 특히 IT전자,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시공간의 경계 없이 접근 가능한 특성으로 확산의 범위와 속도가 매우 넓고 빠르다. 기업들이 타 국가로 진출 시, 고려하는 것이 현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소비의 특성이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혼합되어야 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와 지역 사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출하는 나라나 지역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피할 길만 모색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불신과 거부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세계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제 기업들도 지역사회나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과 같이 집단지성을 통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과 브랜드가 보유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더해 이 대안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강한 연대감과 함께 장기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해줄 것이다.

THE GOOGLE IMPACT CHALLENGE, GOOGLE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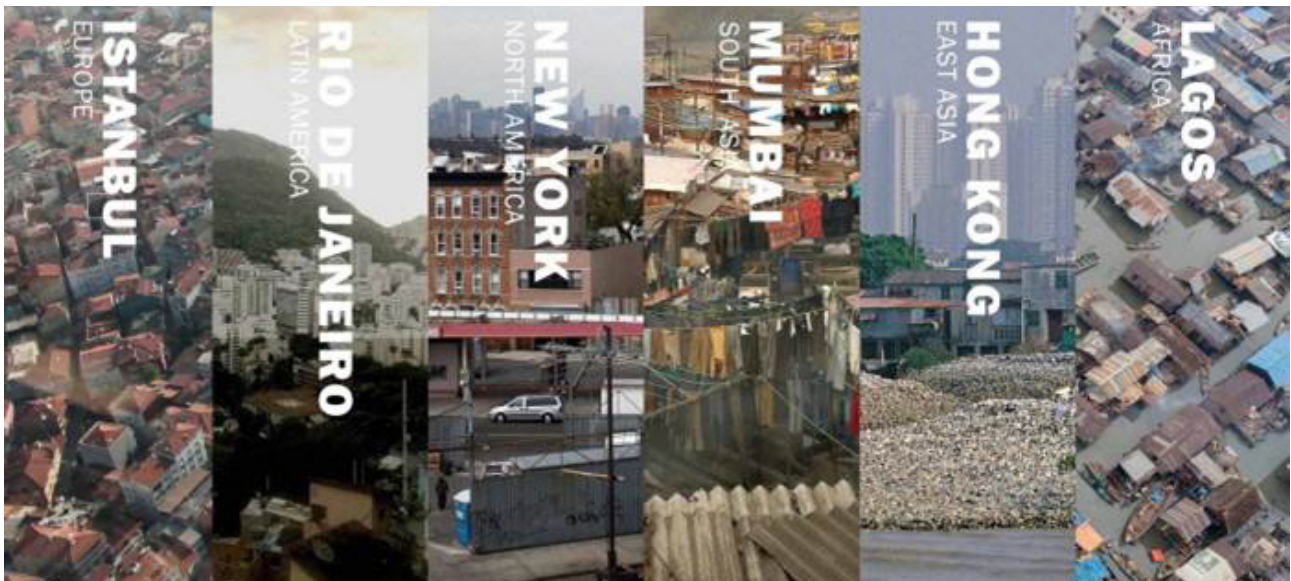


구글 임팩트 챌린지(globalimpactchallenge.withgoogle.com)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와 협업하여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함. 10개 후보를 선정해서 이미 이십만파운드 상금을 주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작품 4개를 투표할 수 있음. 선정된 프로젝트는 오십만 파운드 상금과 더불어 구글의 도움으로 프로젝트가 실현화됨. 모기로 인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소싱 데이터와 모기를 추적하는 음향 사운드 기술을 활용하고, 젊은 노숙자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게임, 사회 복지를 관리할 수 있는 앱 등등 10개 프로젝트가 있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지구촌에 복지로 환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일한 중 하나임. 이는 구글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임. 또한 사람들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브랜드 경험을 유도하게 됨.

도시불평등 해결을 위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이탈리아 출신 디자인 운동의 대가 마시모 비그넬리(Massimo Vignelli)는 '디자이너의 인생은 추한 것과의 전쟁이다(The life of a designer is a life of fight: Fight against the ugliness)'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비그넬리가 이끄는 디자인 운동의 사상이 '디자인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보다 나은 질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가 말한 'the ugliness'는 어딘가 문제를 품은,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서비스 디자인이 부상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 디자이너 뿐 아니라 마케터와 기술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디자인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도시의 불평등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의 균형을 잡지 못한 데서 불거진 문제이다. 지역이 처한 삶의 환경을 다시 바라보면서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성장계획을 세우고, 불균형 정책으로 낙후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UNEVEN GROWTH, MOMA



뉴욕의 모마에서는 어떻게 도시를 계획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해답을 찾는 전시, 고르지 못한 성장: 전략적인 도시화(uneven-growth.moma.org)를 선보임. 도시계획자 및 건축가 6개팀은 14개월 동안 6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여 2050년도의 모습을 그려냄. 선정된 도시는 뉴욕, 리오 드 자네이로, 뭄바이, 라고스, 홍콩, 이스탄불로 현재 인구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빠르게 급성장 중인 도시임. 각 도시 별로 지역이나 주민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에 대응하는 도시 컨셉 디자인을 제안함. 예를 들면 아프리카, 라고스의 경우 현재 강가 지역에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어, 해상 무역도시로 발달된 비즈니스처럼 물과 함께 이루는 교통과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함. 홍콩의 경우에도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바다로 둘러 쌓인 도시라 물을 활용해 바다에 폐기물로 만든 섬 8개를 만들어 각기 다른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임. 앞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어바니즘에 대해 고찰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브랜드 컬처 구축

성, 인종, 국가 등과 관련된 불평등 문제는 세계화된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고질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온 역사와 민족적 정체성, 문화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업과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도 증명되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배려차원을 넘어선 투자의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성차별,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는 캠페인이나 운동을 벌이라는 1차원적인 개념은 아니다. 성과 인종, 국가의 구분을 떠나 한 개인으로써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평가하거나 드러내줄 수 있는 인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FACEBOOK DIVERSITY, FACEBOOK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자기 성적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별 선택지 폭을 넓힘. 성별을 선택할 때 '남성', '여성'외에 '맞춤(Custom)'을 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함. 페이스북은 아울러 사용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에 대해서도 여성 남성 외에 중성의 의미를 가진 '그들(they/their)'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페이스북은 이날 '다양성(Diversity)'페이지에 실리콘 밸리 본사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은 사진을 게시하고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성소수자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라고 강조함.

COLOR IQ, SEPHORA + PANTONE



세계적으로 여러 인종이 존재하고 인종 간 결합까지 고려하면 사람들의 피부색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함. 2012년 팬톤 (pantone.com)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110개의 새로운 스킨 톤을 공개함. 이를 홍보하기 위해 팬톤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피부 색이 아닌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색의 인종이며 개개인의 피부색은 모두 유니크 하고, 특별하다는 평등과 존엄성의 의미를 전달함. 그리고 2013년 뷰티 브랜드 세포라와 합작으로 세포라 매장에서 팬톤의 색상 측정기술이 적용된 휴대용기기를 통해 자신의 피부를 측정하고 공식적인 팬톤 피부색(Pantone®SkinTone™) 고유번호에 따라 알맞은 파운데이션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선보임. 이 서비스는 2013년 8월 대대적인 이벤트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매장에서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300여개 매장으로 확산되어 실행됨.

교육과 일자리 불평등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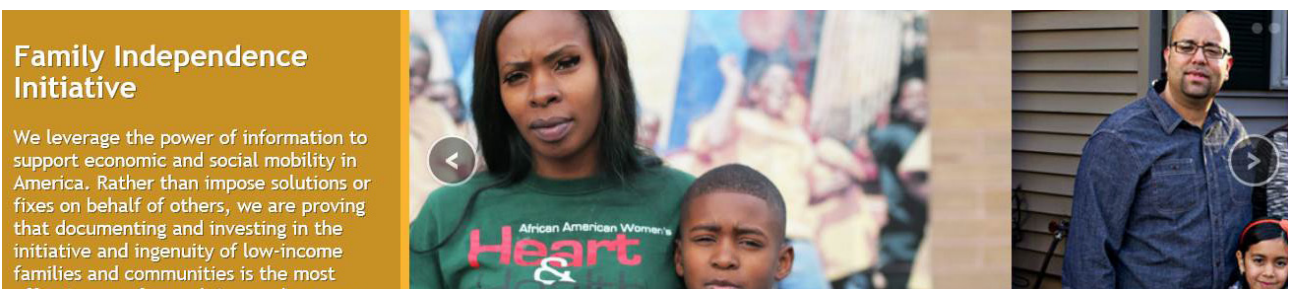
평등한 교육의 기회제공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성장의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라는 영향력있는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좌우되고 있는 시대에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좀 더 사회적인 관점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

UNEVEN GROWTH, MOMA



필리핀 이동통신 회사 smart communications 와 DM9 Jayme Syfu가 함께 진행한 캠페인. 무거운 교재를 오래된 구형 피쳐폰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책을 개발하여 무거운 교과서를 가방에 매일 매고 다니는 필리핀의 교육문제를 개선함. 오래된 구형의 피쳐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필리핀의 뒤떨어진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들과 함께 6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각 과목별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저장하여 구형 피쳐폰에서도 작동하는 SIMCARD(심카드)를 개발함.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 심카드를 나눠주고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쳐폰에 심카드를 꽂아 수업에 활용하게 하도록 하였다고 함.

FAMILY INDEPENDENCE INITIATIVE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패턴과 습관을 트래킹하여 데이터들을 수집, 바른 생활습관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빅데이터 정보분석 기술을 활용해 빈곤계층의 삶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회단체의 서비스인, Family Independence Initiative가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사회혁신가인 마우리시오 림 밀러 (Mauricio Lim Miller)가 설립한 단체로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목표를 형성하고 발전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참가자 가족들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협정을 맺고, 아이의 성적을 올리거나 아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저축설계 등 작은 목표설정과 함께 진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논의, 유사한 생활목표를 실행하는 그룹들과 만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2년 동안 참가한 가계의 수입은 23% 증가하고 저축률은 240%증가하였다고 함. 또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참가 어린이 70%이상이 성적을 향상시켰으며, 참가가족의 30%가 경기침체에 대비한 부업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함.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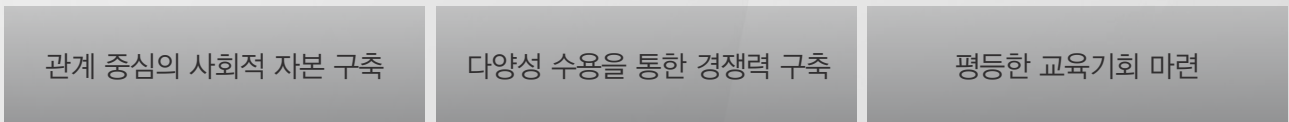
01 무엇이 위기를 불러오는가?

세계화 시대 갈등의 기원, 불평등 THE EXTREMES OF 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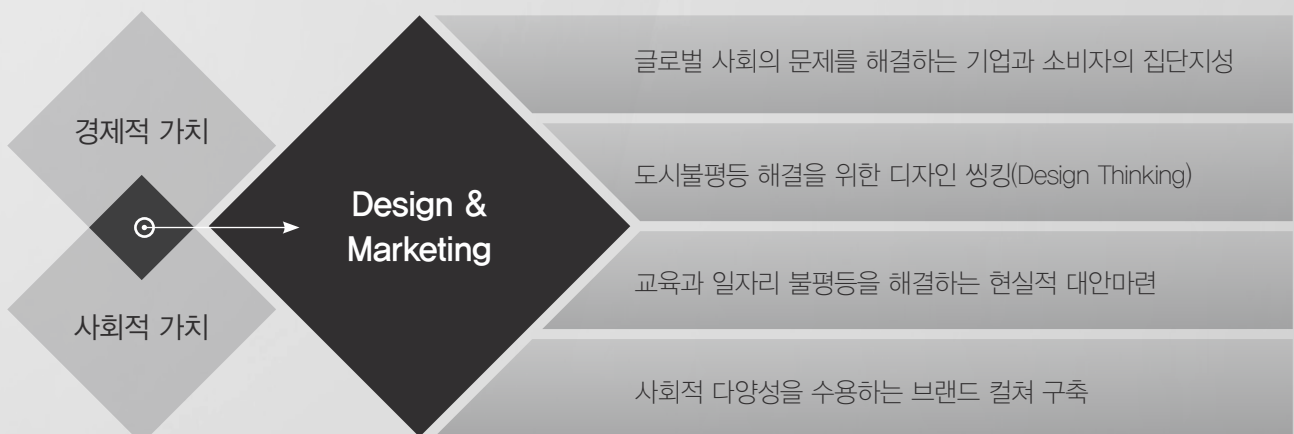
02 대안은 무엇인가?

'고(高) 신뢰 사회'로의 움직임 FOR HIGH TRUST SOCIETY



03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라 BECOME TRULY SOCIAL



융합형 디자인 전략정보 개발 프레임

본 보고서는 '2차년도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 프레임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메가 트렌드/글로벌 이슈 트렌드/마이크로 트렌드/디자인 트렌드/융합 솔루션/미래비전 픽처라는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메가/글로벌 이슈/마이크로/디자인 트렌드의 4가지 카테고리의 정보들은 동시에 수집, 분석되어 다수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트렌드 보고서는 건강생활 / 일과 여가생활 / 가정생활이라는 3가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들의 신제품 & 서비스 사례들을 분석한 것으로, 디자인 트렌드 콘텐츠가 개발되면, '융합 솔루션' 단계에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디자인 융합 코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개발된 모든 보고서 내용은 '미래 비전 픽처'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종합 · 분석되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미래의 인간생활상과 디자인의 비전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01. 메가 트렌드

MACRO TREND

거시환경(경제/기술/사회&인구/환경) 중심의 트렌드 분석

02. 글로벌 이슈 트렌드

GLOBAL ISSUES TREND

글로벌 소비자 및 마켓 동향 분석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글로벌 전시

03. 마이크로 트렌드

MICRO TREND

인간감각을 중심으로 한 미시환경(아트/프로모션/문화아이콘 등) 사례분석

시각

미각

청각

04. 디자인 트렌드

DESIGN TREND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 & 서비스 사례 분석 & 미래유망 산업 분석

05. 융합 솔루션

건강생활

일과 여가생활

가정생활

의식/주
전자/운송

NEW
INDUSTRY

CONVERGENCE SOLUTION

디자인 트렌드 종합분석을 통한
디자인 융합코드 도출

06. 미래 비전픽처

FUTURE VISION PICTURE

최종 콘텐츠 분석을 통한 미래 인간생활상과 디자인 제시

2014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

-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 www.designdb.com
총괄책임 김태완 디자인전략연구실장
실무책임 이경순 전략연구팀장 | 이수강 대리
연구책임 Global Future Group
 손정민 대표 | 손효민 대표 | 이나진 책임연구원 | 신세라 책임연구원 | 이다연 선임연구원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 031-780-2035 ✉ trend@kidp.or.kr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2014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한 디자인트렌드 연구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며
활용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연구, 분석 목적으로 쓰여 졌으며
출처는 각 보고서 해당페이지에 출처 표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시행한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